

광주, 감염병 예방학교 확대...학교내 감염병 대응 강화

지나해 첫 도입한 감염병 예방학교, 3개교서 5개교 확대 운영 학생 참여형 예방 확산...교육청·보건소 등 협력체계 고도화

광주시가 지난해 처음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감염병 예방학교'를 올해 5개 학교로 확대, 학교 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학교'는 학령기 아동들 중심의 수업·성형 등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밀집 생활 공간인 학교 내에서의 신속·체계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교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감염병 교육활동을 운영해 자

율적인 예방 문화를,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참여 학교의 우수 교육 자료와 감염병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각 학교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문화를 확산한다.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 측은 이를 보건소와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고, 광주시·보건소·감염병관리지원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기술·교육 자문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선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해 우수학교를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는 지역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등 학교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시교육청, 각 자치구 보건소,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 예



광주시는 14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감염병 예방학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방학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운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자 감

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을 통해 실용성 있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안

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호남권역 과학인재들, 과학문화 확산 활동 돌입

광주과학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 '루체스타' 발대식 제10기 초·중·고 115명 참여 전시·교육·행사 등 가교 역할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소통가(커뮤니케이터)인 '제10기 루체스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제공=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소통가(커뮤니케이터)인 '제10기 루체스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첫걸음을 뗀 루체스타는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로 10기를 맞이했다. 이번 10기 단원들은 호남권역 초·중·고등학생 115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과학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루체스타 10기 단원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과학관 프로그램 홍보

와 과학소통가(커뮤니케이터)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주요 전시·교육·행사 참여 및 체험,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포스터 및 영상 콘텐츠 참여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 눈높이에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소통하는 가교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 한해 우수한 활동을 펼친 단원들에게는 풍성한 포상도 주어진다. 연말 연간 활동 심사를 통해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하여 광주시장상, 광주시교육감상 및 국립광주과학관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장효정 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 연구원

은 "올해 루체스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행사장을 가득 채워준 단원들과 가족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루체스타 단원들이 과학관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호남권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현혈의집 첨단센터에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광주전남지구회와 현혈·나눔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광주전남혈액원-학사장교 광주전남, 현혈문화 확산 현혈 릴레이·1000만원 목표 모금캠페인 진행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현혈의집 첨단센터에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광주전남지구회와 현혈·나눔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 장미희 현혈지원팀장, 추영호 학사장교, 광주전남지구회장, 김동수 전 혈액원장 등이 참여했다.

학사장교 광주전남지구회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0명을 목표로 'RUN FOR HOPE'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이 됩니다)란 주제로 현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학사장교 동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참여하며, 현혈 릴레이

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올린 회원들에게 현혈의집 첨단센터에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광주전남지구회는 연말까지 동문, 가족을 중심으로 1000만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모금액은 지역 자립 준비생 지원 및 국내외 대학 재단 시 성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진성 광주전남혈액원장은 "젊은 세대 젊은 투혼으로 나라를 지킨 학사장교가 현혈 봉사하는 모습이 주변에 큰 귀감이 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다른 광주전남 회원 단체, 협회에도 널리 퍼져 지역 내 현혈문화가 크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 다문화가족 위해 8000만원 사업비 쾌척

임직원 급여 1%로 조성 '다문화 가족 행복에 관심'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가(家)나(나)다(多) 인형극단'과 HONECO사업에 7900만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사진제공=포스코광양제철소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가(家)나(나)다(多) 인형극단'과 HONECO사업에 7900만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업비는 가나다 인형극단에 3000만원, HONECO사업비 4900만원 등 총 7900만원으로, 포스코 임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탁금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나다 인형극단 사업은 이주 여성들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건강한 부모·부부를 위한 교육,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인형극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인형극단 '색동나무' 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주도하는 인형극단 '색동나무'는 대한민국 사회와 아름답게 융화돼 가는 과정을 담은 문화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지난 2023년 다문

화 미래상 다문화모범봉사상 최우수상, 가천호행대상 다문화 도우미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 모범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HONECO사업은 광양제철소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주여성의 사회적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가족합창단, 다문화가정과 지역민들 간 문화적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맨스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합창단은 한국음악과 다국적 음악을 연계하며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맨스활동은 다문화가정과 시민의 상호교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박종일 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최근 다문화가정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문화적 접근과 안정된 정착을 요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제철소는 다문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새마을회는 최근 조선이공대학교RISE사업단과 지역 연계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동구새마을회, 지역 연계 공동사업 추진

조선이공대학교RISE사업단과 MOU 체결

광주 동구새마을회는 최근 조선이공대학교RISE사업단과 지역 연계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시티 자원 공동활용 및 지역 연계 활성화 등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또 교육·문화·예술등이리 운영과 관리

지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한 인적 교류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영 광주 동구새마을회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주시,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전달

중·고·대학생 67명에 5000만원 지원

여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67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현구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장학금이 빛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주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학생 1인당 7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50만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중·고등학생 38명, 대학생 29명 등 총 67명이다.

장학금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특별장학생은 중·고등